

2016년 1분기 중동 정치 동향과 전망

김수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어통번역학과

■ 주요 내용

- (정치현황) 시리아 난민의 주변국 유입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
- (난민협정) 난민 유입의 궁극적인 원인인 IS사태의 해결에 대한 터키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시리아 난민 문제 장기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터키 정부의 소극적인 행보와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의 갈등으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전망.

1 이슈 현황

☐ (정치 현황) 시리아 난민의 주변국 유입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증대

- 시리아 내전에서 비롯된 IS 사태의 장기화로 2016년 8월 현재, 약 480만 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들이 주변국인 터키와 레바논, 요르단 등지로 유입된 상태¹⁾
- 이 중 터키가 절반 이상인 약 270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음. 이는 터키 정부가 시리아 내전이 본격화되던 2011년 4월부터 적극적으로 난민 캠프를 건설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음.²⁾
 - 터키는 하타이(Hatay) 주의 영토 귀속 문제³⁾, 수자원 문제, 쿠르드족 독립 문제 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시리아와 적대관계였음.
 - 따라서 내전 발발 당시엔 시리아의 알아사드(al-Assad)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반정부 세력을 지지하고 난민들을 대거 수용함.
 - 그러나 내전의 장기화와 IS의 발흥으로 현재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터키 정부의 큰 골칫거리로 대두되고 있음.⁴⁾
- 터키보다 영토와 인구규모가 적은 레바논과 요르단의 경우, 난민들의 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음.
 -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인플레이션의 유발, 자국민과의 갈등과 테러 위협으로 인한 치안 문제가 서서히 정치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고 있음.
- 특히 난민의 약 20%가 11세 이하의 아동으로 교육, 보건 분야에서의 기본적인 아동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난민을 수용한 주변국 내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큼.

1) 유엔난민기구(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검색 일자 : 2016.0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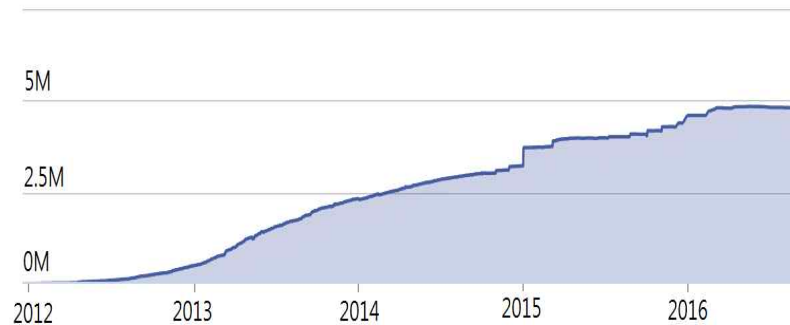
2) 터키 정부는 2011년 한 해에만 하타이(Hatay) 주에 5개의 난민 캠프를 건설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음.

3) 1939년 프랑스가 시리아의 식민통치를 종결시키던 와중에 주민투표로 하타이 주를 터키에 귀속시킨 게 분쟁의 발단이었음.

4) 인남식, 최근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역학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통상부, 2012, p11

그림 1. 중동지역 내 시리아 난민의 증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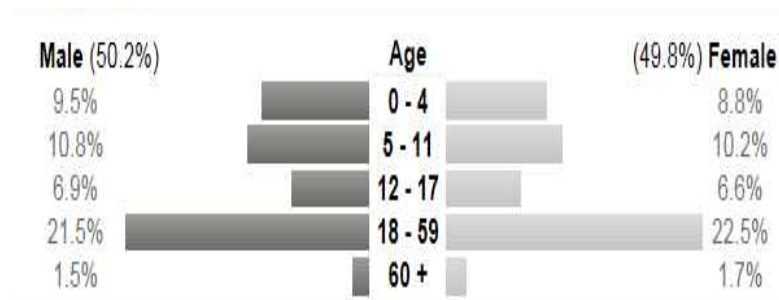
(단위: 명)



자료 : 유엔난민기구(검색일: 2016. 09. 18.).

주 : 터키, 레바논, 요르단 외에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등도 포함된 수치

그림 2. 시리아 난민의 연령별 구성 비율



자료 : 유엔난민기구(검색일: 2016. 09. 18.).

주 : 터키, 레바논, 요르단 외에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등도 포함된 수치

2 원인 분석

☞ (난민협정) 난민 유입의 궁극적인 원인인 IS 사태의 해결에 터키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시리아 난민 문제가 장기화 되는 원인

- 터키 정부의 제1 목표는 그 간 적대관계를 유지하던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과 시리아 내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립을 저지하는 것임.
- 그러나 IS 사태의 해결은 결과적으로 알아사드 정권의 수명 연장과 쿠르드 자치 정부의 수립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터키는 매번 IS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미국과 나토(NATO)에 '인도적 지원과 병참 지원'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해왔음.⁵⁾

5) 이희철, IS 거점 공습으로 본 터키의 대(對) 시리아 국가안보 전략,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2호, 한국중동학회, 2015, p111

- 알아사드 정권과의 대립과 쿠르드 문제는 터키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
 - 터키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IS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적음.
 - 그러나 IS의 잇따른 자살폭탄테러 등으로 최근엔 꽤 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안보적인 측면 외에도 터키는 난민 수용의 대가로 유럽연합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터키인의 유럽 연합 비자 요건 완화를 약속받는 등 난민 문제를 이용하여 대외적인 이권을 얻고자 함.
 - 지난 8월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gan) 터키 대통령은 터키인에 대한 유럽연합 무비자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3월에 맺은 난민협정을 지킬 수 없다고 경고함.⁶⁾
 - 결국, 모든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터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난민 문제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
 - 난민 수용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유럽연합 회원국 및 터키와 달리 중동 지역 내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은 취약한 사회구조와 제반시설 등으로 인해 난민 유입으로 인한 각종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 이는 향후 중동 정세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됨.

3 전망과 시사점

☞ 터키 정부의 소극적인 행보와 이해관계가 얽힌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의 갈등으로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다른 중동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계속 증대될 것으로 보임.

- 9월 17일 미 공군의 오폭 사고로 시리아 정부군이 상당수의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향후 평화회담에도 난항이 빚어질 것으로 보임.
 - 오바마 행정부의 현 목표는 올해 11월 실시될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승리
 - 따라서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회담의 극적의 타결을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함.
 -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서방 간의 갈등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선 평화회담에서 큰 양보를 해주긴 어려운 상황
 -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 혹은 유지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차이는 올해 안에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6)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유럽으로 몰려드는 난민을 통제하기 위해 터키와 난민협정을 체결함.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들을 터키로 송환하는 대신, 터키 수용소 난민들을 송환자 수만큼 선착순으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었음. 그러나 이후 후속협상이 지지부진했으며, 7월 발생한 터키의 군부 쿠데타 진압 과정에 유럽연합이 법치 준수를 요구하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더 이상의 난민 수용은 할 수 없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냄.
 연합뉴스, 터키 대통령 "터키인에 EU비자 면제 안 되면 난민협정 못 지켜", (기사작성일: 2016.08.08./검색일자: 2016.09.1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8/0200000000AKR20160808180300081.HTML?input=1195m>

- 대선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뒤를 이을 차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회담의 향방이 달려있음.
-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터키와 유럽연합 간의 불협화음도 큰 숙제
 - 난민 수용 문제로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음.
 - 난민 유입으로 인한 제노포비아(Xenophobia)가 유럽 사회에 만연하면서 우파정당들이 잇따라 득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내 정치구조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음.
 - 브렉시트(Brexit) 사태로 말미암은 회원국들의 이탈 우려도 유럽연합의 큰 숙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
 - 여기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터키 정부의 현 행보를 볼 때, 대응적인 차원에서 유럽연합과 터키가 난민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은 희박함.
 - 결론적으로 난민 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있는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이상, 난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함.
-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터키 정부가 향후 난민 수용을 차단할 시, 시리아 난민들의 상당수는 중동의 주변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큼.
 - 앞서 언급했듯이 레바논과 요르단, 이라크는 난민 수용을 위한 여건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시리아 난민과 중동 주변국 국민들 간의 갈등이 종파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 사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이어지지 않는 한, 난민 문제는 장기적으로 중동 내 정치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큼. **EMERiCs**

출처

인남식, 최근 시리아 사태의 동향과 역학관계,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통상부, 2012

이희철, IS 거점 공습으로 본 터키의 대(對) 시리아 국가안보전략, 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2호, 한국중동학회, 2015

유엔난민기구(UNHCR), <http://data.unhcr.org/syrianrefugees/regional.php>

연합뉴스 보도자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8/02000000004R20160808180300081.HTML?input=1195m>